■ 민족문화연구 제87호(2020.05.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341-364.
http://doi.org/10.17948/kcs.2020..87.341

CCM에 나타난 [인생은 여행] 은유 연구*

이주랑(李주랑)**

목 차

1. 서론
2. 연구 설계
3. 근원 영역 '인생'의 구성 요소
4. 하위 은유별 실현 양상과 특성
5.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CCM에 나타난 [인생은 여행] 은유를 하위분류하고 그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보편적 은유가 특정한 언어 공동체의 세계관과 결합했을 때 만들어지는 특수성을 살핀 것이다. 분석 결과 '삶의 주체는 여행자', '삶의 과정은 길', '조언자(절대자)는 가이드', '선택점은 갈림길', '일상은 도보'와 같은 하위 은유를 정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CCM에서 역시 [인생은 여행]이라는 보편적 은유가 통용됨을 확인하였다.

한편 위 은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수성을 보였다. 첫째, '가이드'가 절대적인 존재로 나타난다. 둘째, '길'은 가치 판단의 대상이며 이분법적으로 나뉜다. 셋째, 미래의 '목적지'와 관련된 표현은 절제된 반면, 현재와 관련된 '도보' 표현은 빈출하였다. 이는 각각 인생이란 절대자에게 의탁하지 않고는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 신앙인은 신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장학금 지원에 의한 논문임.
**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앙 양심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기를 요구받으며 따라서 인생의 선택지는 옳은 것과 그른 것으로 양분되어 인식될 수 있다는 점, 인생에 대한 인지에서 당면한 삶의 현장이 초점을 받고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본고에서는 [인생은 여행]이라는 보편적 은유에 가미된 특수성을 통해 동시대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관에 부합하는 나름의 인지 체계가 성립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인생의 구성 요소 중 '목적지'에 대응시킬 만한 것을 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추후 여행 사건의 원형에 대해서 고찰해 볼 것을 제안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가치관, 세계관을 매개로 한 인지언어학 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언어뿐만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타자에 대한 이해까지도 넓혀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개념적 은유, 여행 은유, [인생은 여행], CCM, 종교 언어, 기독교.

1. 서론

개념적 은유 이론은 국내에 소개된 이래 특정 개념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탐구하는 데에 유용한 분석틀이 되어 왔다. 초기 연구는 주로 은유 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한국어 자료에 적용하여 사랑, 정, 한과 같은 추상적 개념에 대한 우리의 인지를 가늠해 보는 것이었다.[1] 최근에는 사건이나 담론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연구로 그 지평이 확대되었는데, 은유 분석을 통해 '햇볕정책'의 바탕이 된 인지 기제를 분석한다거나,[2] 한국인의 질병관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고,[3] 성별 언어에 덧입혀진 함의에 대해 살펴보기도 하였다.[4] 이처럼 한국어 은유 연구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인지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특정 사안에 대한 언중의 인식을 알아보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언

1) 나익주, 「"정"과 "한"의 은유적 개념화」, 『한국어 의미학』 제20집, 한국어의미학회, 2006, 91-120면; 방영심・이정화, 「한국어에 나타나는 "한(恨)"의 개념화 양상」, 『한국어 의미학』 제22집, 한국어의미학회, 2007, 95-121면.

2) 권익수, 「햇볕 정책, 그리고 개념적 은유」, 『담화와 인지』 제22권 3호, 담화・인지언어학회, 2015, 19-37면.

3) 전혜영, 「은유 표현을 통해 본 한국인의 질병관」, 『한국문화연구』 제30호,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16, 133-161면.

4) 유희재, 「남성과 여성을 나타내는 동물 은유의 비판적 분석」, 『담화와 인지』 제24권 4호, 담화・인지언어학회, 2017, 87-113면.

어 표현을 통해 한국어 사용자들이 공유하는 인지 구조를 논의할 수 있었던 것은 개념적 은유의 보편성에 기댄 것이라 할 수 있다.

은유는 이처럼 보편성을 갖는 한편, 특정한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공유하는 공동체에서 실현될 때에는 특수성 또한 띠게 된다. 일례로 레이코프의 논의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를 막론하고 [국가는 가정] 은유를 공유하고 있다.[5]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은 가정을 "엄격한 아버지의 가정"으로 이해하는 반면, 진보주의자는 "자상한 부모의 가정"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양측은 각자의 인식에 따라 국가의 정책을 이해하고 자신의 입장을 결정하고 있었다.[6] '가정'과 같이 보편적 개념에 기반한 은유도 그것을 사용하는 공동체에 따라 달리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는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나 신념이 해당 공동체의 은유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드러낸다. 개념적 은유는 언어 공동체를 초월하는 보편성을 가지지만, 실현 양상에 있어서는 맥락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은유가 가진 보편성뿐만 아니라 맥락에 따라 발현되는 특수성 역시 유의미한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하나의 세계관이 그것을 공유하는 집단의 은유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위해 종교 언어의 한 갈래로서 기독교 언어를 다루고자 한다. 종교관 역시 정치관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가치관과 세계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기독교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종교의 하나이다. 따라서 동시대의 기독교 언어를 분석함으로써 맥락에 따른 은유 실현의 특수성을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기독교 언어의 범주가 너무 넓고 개념적 은유의 종류 역시 많으므로, 본고에서는 현대성과 대중성을 갖춘 기독교 언어로서의 'CCM[7]'과 보편적인

5) 조지 레이코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유나영 역, 와이즈베리, 2015.
6) 같은 책, 26면.
7)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은 동시대에 만들어져 향유되는 찬양의 일종이다. 찬양은 다양한 형태의 기독교 언어 중에서 대중성이 높은 장르로 볼 수 있다. 설교나 간증, 대표 기도 등은 예전 또는 집회에서 집례자나 순서 맡은 사람에 의해서 발화되는 데 반해, 찬양의 경우 의례 중에도 청중들의 입으로 불리며 의례 외적 상황에서도 개별적으로 향유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찬양 중에서도 CCM은 가장 현대적인 장르이다. 배연주에 따르면 찬양은 "기독교 역사와 발맞추어 온 오

은유 중의 하나인 '여행 은유'로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본고의 목표는 CCM에서 나타난 [인생은 여행] 은유를 하위분류하고 그 인지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8] 이를 통해 은유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맥락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보편적 은유 위에서 발현되는 특수성의 양상은 어떠한지 가늠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설계

1) 이론적 배경

인지언어학에서 개념적 은유란 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영역의 개념을 동원하는 인지 기제이다. 이해하고자 하는 개념의 영역을 '목표 영역(Target Domain)'이라고 하고, 이를 위해 동원된 개념의 영역을 '근원 영역(Source Domain)'이라고 한다. 예컨대 '사랑'에 대해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여행'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사랑'이 목표 영역이며 '여행'이 근원 영역이 되는 것이다. 이때 [사랑은 여행] 은유가 성립한다고 한다. 아래는 레이코프와 존슨[9]이 제시한 [사랑은 여행] 은유가 사용된 표현들이다.

래된 곡들"이 포함된 '찬송가'와 "이전부터 전해져 온 찬송가만으로는 그 시대의 신앙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서 만들어진 "새로운 노래"인 '복음성가'로 나뉘는데, '복음성가' 중에서도 "더욱 현대적인 감각에 맞는" 새로운 노래가 'CCM'에 해당한다. 배연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한국 교회에서의 언어 사용 유형 및 가치관」,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3, 129면. 이러한 대중성과 현대성을 방증하듯 여러 음원 사이트에서 CCM이라는 장르를 따로 편성하고 정기적으로 인기 순위를 집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일상에서 CCM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8) 신앙이 여행으로 은유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연구로는 다음이 있다: 전혜영, 「한국어 표현에 나타나는 여행 은유」, 『이화어문논집』 제33집, 이화어문학회, 2014, 75-103면. 위 연구는 종교 언어로 맥락을 제한하지 않고, 보편적인 한국어 표현에 나타나는 여행 은유 표현을 수집하여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발견한 여행 은유 중 하나가 "신앙을 찾는 과정"을 여행으로 이해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 연구에서는 [신앙은 여행] 은유로 본 것이다. 같은 글, 89-91면.

그러나 본 연구자는 여행으로 은유되는 것은 '신앙' 그 자체가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즉 신앙인의 '인생'이라고 해석한다. 이런 차이를 기반으로 하여 본고는 [신앙은 여행]이 아니라 신앙을 가진 공동체의 언어에서 나타나는 [인생은 여행] 은유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위 연구가 '여행으로서의 신앙'을 제시하였다면, 본고는 신앙이라는 맥락 속에서 나타나는 '여행으로서의 인생'을 다루는 것이다.

9) 조지 레이코프・마크 존슨, 『삶으로서의 은유(수정판)』, 노양진・나익주 역, 박이정, 2006.

(A)[10]

ㄱ. 우리는 그저 각자의 길을 가야 해.
(We'll just have to go our separate ways.)
ㄴ. 나는 이 관계가 더 이상 진전될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
(I don't think this relationship is going anywhere.)
ㄷ. 그것은 길고 험한 길이었다. (It's been a long, bumpy road.)
ㄹ. 우리 결혼은 좌초되었다. (Our marriage is on the rocks.)

이러한 은유 표현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이별', '관계의 진전', '어려움', '실패' 등)가 '여행'이라는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각자의 길', '진전', '길고 험한 길', '좌초' 등)와 체계적으로 대응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개념적 은유는 '사랑'과 같이 추상적인 개념을 '여행'과 같이 구체적으로 또한 신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개념에 대응시킴으로써 우리의 이해를 돕는 효과적인 인지 기제이다. 레이코프와 존슨은 "인간의 개념체계가 은유적으로 구성되고 규정"되며, "언어적 표현으로서 은유가 가능한 것은 바로 인간의 개념체계 안에 은유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11]

본고에서 살펴볼 [인생은 여행] 은유 역시 '인생'이라는 개념을 '여행'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다. 박정운[12]은 [인생은 여행]의 은유적 사상(Mapping) 관계를 (B)와 같이 정리하였다.

(B)[13]

인생		여행
삶을 살아가는 주체	———	여행자
살아가는 과정에서의 목표들	———	여행의 목적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	길
삶의 조언자	———	가이드
인생에서의 선택점	———	갈림길
삶의 진행 정도를 알리는 것들	———	이정표

10) 같은 책, 93면.
11) 같은 책, 25면.
12) 박정운, 「개념적 은유 이론」, 『언어와 언어학』 제28집, 한국외대 언어연구소, 2001, 85-107면.
13) 같은 글, 88면.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연구자에 따라 ‘인생’의 구성 요소와 ‘여행’의 구성 요소를 선정하는 데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인생의 구성 요소와 여행의 구성 요소 간에 체계적인 사상이 이루어지고 은유의 내적인 일관성이 유지된다면, 연구자별 목록 차이에도 불구하고 해당 은유의 성립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또한 앞으로 구체적인 언어 자료 분석을 통해 [인생은 여행] 은유의 구성 요소를 보강해 나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연구 방법

연구를 위해 음원 사이트 멜론[14]에서 제공하는 월간 차트를 활용하였다. 멜론에서는 매월 장르별로 음원의 인기 순위를 집계하여 1위부터 100위까지의 음원 목록을 월간 차트로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중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최근 2년간의 CCM 장르 월간 차트 24개를 확인하였다. 매월 다른 곡이 100위권에 들었다면 24개월간 최대 2400개의 음원이 집계되어야 하겠으나 실제로는 중복된 곡이 많았다. 특히 39개의 음원은 24개월 모두 월간 차트에 올라 특정 곡들이 반복적으로 소비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고려하여 조회한 기간 중 10개월 이상 월간 차트에 올랐던 91개의 음원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음원 목록은 아래와 같다.

〈표 1〉 분석 대상 음원 목록

번호	음원 제목	아티스트	횟수	번호	음원 제목	아티스트	횟수
1	Born Again	제이어스	24	47	Love Never Fails (부제 : 여호와께 돌아가자)(Live)	제이어스	21
2	Everyday	제이어스	24	48	가장 높은 곳에서 (From The Highest)	제이어스	21
3	Love Never Fails	제이어스	24	49	내 마음 다해	마커스	21
4	감사함으로	마커스	24	50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CD Mix)	어노인팅	21
5	광야를 지나며	히즈윌 (HisWill)	24	51	아름다우신	예수전도단	21

14) 멜론, https://www.melon.com(2019.05.02. 검색, 2020.03.23. 재검색).

번호	음원 제목	아티스트	횟수	번호	음원 제목	아티스트	횟수
6	그 사랑	마커스	24	52	주님의 사랑	마커스	21
7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Studio Ver.)	마커스	24	53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Feat. 유은성, 박요한)	유은성	21
8	그가 오신 이유	마커스	24	54	주의 옷자락 만지며	어노인팅	21
9	나는 노래하네 (I Sing)	제이어스	24	55	주의 이름 높이며	제이어스	21
10	나는 예배자입니다	어노인팅	24	56	지금 이 자리에서 Here At This Place	마커스워십 (MARKERS WORSHIP)	21
11	나는 주만 높이리 (Only A God Like You)	마커스	24	57	한나의 노래 Hannah`s Song	마커스워십 (MARKERS WORSHIP)	21
12	나를 향한 주의 사랑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제이어스	24	58	희망의 노래	어노인팅	21
13	날 향한 계획	마커스	24	59	은혜로다	예수전도단	20
1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 승리하였네	제이어스	24	60	주 안에서 기뻐해	어노인팅	20
15	내 모습 이대로 (Just As I Am)	제이어스	24	61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Live)	제이어스	20
16	내 진정 사모하는	어노인팅	24	62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God So Loved The World)	스캇브래너, 레위지파	20
17	모든 상황속에서	어노인팅	24	63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어노인팅	18
18	믿음으로 서리라	마커스	24	64	온 맘 다해 (With All My Heart)	어노인팅	18
19	밀알	천관웅	24	65	그때에 나는	어노인팅	17
20	부르신 곳에서	마커스	24	66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어노인팅	17
21	성령이 오셨네	어노인팅	24	67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어노인팅	17
22	소원	어노인팅	24	68	하나님의 그늘 아래	어노인팅	17
23	시선	예수전도단	24	69	하나님의 등불 Still Here	마커스워십 (MARKERS WORSHIP)	17
24	시편 139편	제이어스	24	70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노인팅	16
25	십자가 (The Cross)	제이어스	24	71	기꺼이 주께 (요나단의 고백) Willing Sacrifice (Jonathan`s Confessions)	마커스워십 (MARKERS WORSHIP)	15
26	예수 나의 치료자	텐트메이커스	24	72	나는 오늘도 가네 I Still Walk In Faith (인도 : 소진영)	마커스워십 (MARKERS WORSHIP)	15

번호	음원 제목	아티스트	횟수	번호	음원 제목	아티스트	횟수
27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어노인팅	24	73	내 삶 드리리	마커스	15
28	오직 예수 뿐이네 Only Jesus (인도 : 소진영)	마커스워십 (MARKERS WORSHIP)	24	74	다윗의 노래 David's Song (인도 : 소진영)	마커스워십 (MARKERS WORSHIP)	15
29	주 사랑이 나를 숨 쉬게 해	어노인팅	24	75	대단한 믿음 없어도 His Love Leads Me (인도 : 소진영)	마커스워십 (MARKERS WORSHIP)	15
30	주 은혜임을	마커스	24	76	믿음과 삶 Faith And Life (Solo 박은미)	마커스워십 (MARKERS WORSHIP)	15
31	주는 완전합니다	마커스	24	77	예수, 늘 함께 하시네 Jesus, Always With Me (인도 : 소진영)	마커스워십 (MARKERS WORSHIP)	15
32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커스	24	78	주님을 보게 하소서	마커스	15
33	주님은 산 같아서	마커스	24	79	놀라운 주의 사랑 (Beautiful One)	어노인팅	14
34	주를 위한 이곳에	마커스	24	80	동행	함부영	14
35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노인팅	24	81	믿음이 없이는 (Feat. 김동욱, 강지은, 조서연, 조성범)	히즈윌 (HisWill)	14
36	천 번을 불러도	주리	24	82	은혜로다	제이어스	13
37	하나님의 세계	홍이삭	24	83	잇쉬가 잇샤에게 (With 이상혁, 이시연, 오종훈, 안혜정)	김복유	13
38	하늘 위에 주님밖에	제이어스	24	84	내 마음이 참 외로울 때	어노인팅	12
39	할렐루야 (지미선)	Good Song	24	85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포스	12
40	매일 매일	어노인팅	23	86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제이어스	11
41	믿음으로 나아가네 Walking By Faith (Solo 박은미)(인도 : 소진영)	마커스워십 (MARKERS WORSHIP)	23	87	예배합니다	어노인팅	11
42	온 땅의 주인 (Who Am I)	어노인팅	23	88	나 기대해 Sincere Promise	마커스워십 (MARKERS WORSHIP)	10
43	감사함으로	제이어스	22	89	내가 주인 삼은	어노인팅	10
44	나의 백성이	제이어스	22	90	사랑은 여기 있으니	제이어스	10
45	예수 예수	어노인팅	22	91	예수로 살리	플레이트 (PLATE)[15]	10
46	오직 주만이	소향	22				

※횟수: 월간 차트에서 100위 안에 진입한 개월 수

15) 해당 아티스트는 최초 검색일(2019.05.02.)에 '멜론'에 '마커스 커뮤니티'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투고 시점(2020.03.23.)에 다시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플레이트(PLATE)'로 이름이 바뀌어 있었다.

분석을 위해 〈표 1〉의 음원 가사에서 [인생은 여행] 은유가 사용된 표현을 수집하였다. 수집한 표현들은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인생'의 구성 요소와 '여행'의 구성 요소를 참고하여 구성 요소별로 분류하고 정리하였다. 그 후 하위 은유별로 은유 표현의 구체적 실현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기독교 언어에서 나타나는 [인생은 여행] 은유가 갖는 특성을 고찰하였다.

3. 근원 영역 '인생'의 구성 요소

[인생은 여행] 은유의 실현 양상을 보기 위해서는 자료에서 '인생'이라는 개념 영역의 구성 요소와 '여행'이라는 개념 영역의 구성 요소, 그와 관련된 표현들을 수집하여야 한다. 본고에서는 수집할 표현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인생은 여행] 은유의 구성 요소를 먼저 확인하고자 한다. 박정운[16]과 나익주[17]가 제시한 '인생'과 '여행'의 구성 요소들을 함께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선행 연구의 [인생은 여행] 은유 구성 요소[18]

목표 영역(인생)의 구성 요소		근원 영역(여행)의 구성 요소
박정운	나익주	
삶을 살아가는 주체	삶의 주체	여행자
살아가는 과정에서의 목표들	삶의 목표	목적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목표 달성 수단	길
삶의 조언자	조언자	가이드
인생에서의 선택점	삶의 선택 순간	갈림길
삶에서의 난관	삶의 어려움	장애물
삶의 진행 정도를 알리는 것들		이정표
	삶의 계획	여정

16) 박정운, 앞의 글.
17) 나익주, 『조지 레이코프』, 커뮤니케이션북스(주), 2017.
18) 목표 영역의 구성 요소들은 다음 연구에서 직접 인용하였다. 박정운, 앞의 글, 88면; 나익주, 앞의 책, 2017, 26면. 근원 영역의 구성 요소들은 역시 두 연구의 표현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간결하게 다듬은 경우가 있으며('여행의 목적지'→'목적지'), 두 연구의 표현이 다른 경우에도 간결한 쪽을 선택하였다('여행 가이드'와 '가이드' 중에 '가이드'로, '여행의 장애물'과 '장애물' 중에서 '장애물'로 표기).

이를 통해 '여행자, 목적지, 길, 가이드, 갈림길, 장애물'이 여행 은유의 공통적인 구성 요소로 간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표 2〉를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표현을 주로 정리하되, 이 외에도 실제 CCM 가사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여행의 구성 요소가 있다면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지면 관계상 인용한 가사의 출처는 〈표 1〉의 해당 음원 번호를 인용문 끝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표시하였다.

1) 여행자

'여행자'는 여행이라는 근원 영역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비록 CCM 가사에서 여행자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행을 하고 있는 주체가 나타난다면 여행자 요소가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C)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렴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⑦②[19]

(D)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㊲

인용된 가사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도" 길을 걸어가는 사람, "수없이 넘어져도" "주가 가르쳐준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이 등장한다. 여행자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주체가 여행을 하는 과정에 있음이 나타나는 것이다.

19) 〈표 1〉의 목록에서 72번에 해당하는 음원('마커스워십 (MARKERS WORSHIP)'의 '나는 오늘도 가네 I Still Walk In Faith (인도 : 소진영)')의 가사임을 의미한다. 이후 인용한 가사들의 음원 표시 방식도 동일하다.

2) 길

‘길’에 관한 은유 표현 중 대표적인 것들은 아래와 같다.

(E)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㊼

(F)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비록 내 앞길 캄캄하여도 믿음으로써 가게 하시네 ㊽

(G) 아는 것과 그렇게 산다는 게 달라 힘이 들어도
통과할 길이라면 가야 해요
그 길이 길고 어두워도 함께 가는 날 봐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 해도 그게 아냐 ㊿

이처럼 CCM에서도 ‘길’이 여행 은유를 구성하는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20]와 같이 ‘길’을 ‘목표 달성 수단’에 대응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길’이 ‘목표 달성 수단’이 되려면, 먼저 은유상에서 목표가 제시되어야 하고, 여행자가 이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길을 선택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E)와 (F)의 경우 여행자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고단한 인생길”과 “캄캄”한 “앞길”을 선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G)의 경우 역시 길이 수단이 아니라 통과해야 하는 과정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더 논의하기로 한다.

20) 박정운, 앞의 글, 88면; 나익주, 앞의 책, 2017, 26면. 앞에서 정리한 〈표 2〉 참고.

3) 가이드

'가이드'와 관련된 은유 표현들은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H)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㊺

(I)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㉔

(J)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㉕

가이드는 길을 "인도"하고, 여행자는 가이드를 "따라가는" 모습으로, CCM 가사에서도 선행 연구들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삶의 조언자는 가이드'와 같은 하위 은유가 성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갈림길

'갈림길'이라는 표현은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K) 매일 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㊵

이를 통해 '삶의 선택점은 갈림길'과 같은 하위 은유가 성립함을 볼 수 있

다. 직접적으로 '갈림길'이라는 단어가 가사에 노출된 음원은 한 곡뿐이었으나 여러 종류의 길이 있고 여행자가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은 여러 음원에서 나타났는데 그 역시 인생에서 선택의 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5) 도보

'도보'는 선행 연구에서 여행의 구성 요소로 제시되지 않았던 항목이다. 그러나 CCM 가사에서는 도보가 이동 수단의 하나로서 자주 등장하였으므로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하였다.

(L)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②

(M)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㊲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긴 시간을 인생으로 보고 이것이 여행에 은유된다면, 상대적으로 작은 단위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은 여행을 구성하는 '도보', 즉 그날그날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은유된다고 볼 수 있다.

6) 요약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CCM에 나타난 '여행'의 구성 요소로는 '여행자, 길, 가이드, 갈림길, 도보'가 있다. '목적지, 장애물, 이정표, 여정'과 관련된 표현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여행이라는 개념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 요소가 문면에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여행을 이루는 수많은 구성 요소 중 어떤 것이 더 인지적으로 부각되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도보'는 선행 연구에서 여행의

구성 요소로 꼽지 않았던 항목이지만, 가사 검토 결과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었기에 구성 요소로 추가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여행의 구성 요소로서의 '여행자, 길, 가이드, 갈림길, 도보'가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은유 표현으로 사용되는 모습과 그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4. 하위 은유별 실현 양상과 특성

1) 삶의 주체는 여행자

[인생은 여행] 은유가 성립한다면 목표 영역인 '인생'의 주체는 근원 영역인 '여행'의 주체인 '여행자'로 사상된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와 같이 '삶의 주체는 여행자'라는 하위 은유를 상정할 수 있는데, 이 하위 은유는 앞으로 살펴볼 다른 하위 은유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주체가 바로 '여행자'이기 때문이다. '여행자'는 때로는 '갈림길'을 만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가이드'의 인도를 받아 여행을 지속해 나가게 된다. 아래에서 이러한 은유 표현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2) 삶의 과정은 길

'길'이 여행의 구성 요소로서 은유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이미 살펴보았다. 그런데 〈표 2〉에서와 같이 '길'에 대응되는 요소를 '목표 달성 수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성립하려면 목표 영역의 차원에서 '인생'은 목표 달성을 위해 살아가는 과업 지향적인 사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근원 영역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아도, '길'은 여행의 목적지를 향해 나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여행자를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색하다.

이런 어색함은 CCM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본고와는 달리 맥락을 제한하지 않고 세종 말뭉치나 구글 학술 검색을 통해 여행 은유 표현을 수집하여 분석한 전혜영의 연구에서는, 길과 관련된 은유 표현으로 "탄탄대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삶의 뒤안길", "굴곡진 길", "생사의 갈림길" 등이

제시된 바 있다.[21] 이것들은 여행자가 여행 중에 만나게 되는 다양한 종류의 길들로서, 역시 그 자체를 여행의 수단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은유적으로는 개인이 인생에서 겪게 되는 삶의 과정 혹은 국면에 가깝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여행 은유에서 '길'은 '수단'이라기보다 여행자가 선택한 결과로 거치게 되는 삶의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설명에 보다 용이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인생은 여행] 은유에서 '길'이 '목표 달성 수단'이 아닌 '삶의 과정'이 사상된 것으로 해석하며, '목표 달성 수단은 길' 대신에 '삶의 과정은 길'이라는 하위 은유를 설정하고자 한다.

3) 조언자(절대자)는 가이드

'삶의 조언자는 가이드'라는 하위 은유가 성립한다는 것은 3장에서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 때 가이드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CCM에서 등장하는 가이드는 길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여행자의 마음을 알아 주며, 종일 동행하면서 때로 지친 여행자를 안고 가는 등 그 역할이 상당하다. 즉 CCM의 가이드는 여행자가 물리적 조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공감과 지지도 받을 수 있는 존재로서 동반자이자 보호자이기도 한 것이다.

더욱이 CCM에서 이러한 '가이드'에 사상되는 '조언자'는 다른 인간이 아니라 '절대자'를 의미한다. 이처럼 근원 영역의 '가이드'가 여행 전체에서 필수불가결한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이 '가이드'가 사상되는 '조언자'가 곧 기독교의 신을 의미한다는 사실은 '조언자는 가이드'라는 하위 은유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이러한 은유 속에서 절대자는 일상에서 인간이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근한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또한 인생은 매 순간 절대자에게 의탁하지 않고서는 지속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종합하면 기독교 공동체의 언어에서도 '인생'은 역시 '여행'으로 은유되나, 이 때의 여행이란 꾸준히 '절대자와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갖는다고 정리할 수 있다.

---

21) 전혜영, 앞의 글, 2014, 84-85면.

4) 선택점은 갈림길

본고에서는 CCM에서도 선행 연구에서 지적한 '선택점은 갈림길'이라는 하위 은유가 성립한다고 본다. 여러 개의 길이 있고 그것이 여행자의 선택을 요구하는 상황은 인생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선택점이 은유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갈림길'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여행자가 여러 개의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역시 인생에서 선택점을 만난 상황으로 이해된다. (N)에서처럼 여러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결단을 내렸고, 그 결과 "곱디고운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걷게 된 여행자의 모습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N)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겐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㊲

그런데 CCM 가사에 나타나는 다양한 '길'은 궁극적으로는 가도 되는 길과 가서는 안 되는 길로 양분된다. 여행자는 (N)에서와 같이 "세상"이 말하는 "곱디고운 길"로 가서는 안 되며 (O)와 같이 "악한 길"은 떠나야 한다. 또한 (P)와 같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하며 (Q)와 같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 "주의 길"을 가야 한다.

(O)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㊹

(P)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㊺

(Q)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㉜

이처럼 다양한 길들이 결과적으로는 가야 할 길과 가서는 안 되는 길로 이분법적으로 나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갈림길에서 여행자의 경로 선택에 있어서 정답과 오답이 항상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즉 CCM의 [인생은 여행] 은유에서는 갈림길에 선 여행자의 선택에 대한 가치 판단이 이루어지며, 이는 인생에서의 의사 결정이 옳은 것과 그른 것으로 분명히 나뉜다는 인식을 함의한다.

5) 일상은 도보

인생 전체가 여행이라면, 인생을 구성하는 하루하루의 시간들은 여행을 이루는 한 걸음 한 걸음의 도보로 은유된다고 볼 수 있다. 매일의 일상을 통해 인생이 완성되듯, 한 걸음 한 걸음의 진행을 통해서 여행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상은 도보'와 같은 하위 은유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CCM 가사에서는 도보 관련 표현들이 상당히 빈번히 나타났다.

이는 또 다른 파생 은유를 만들어내는데, 바로 도보 도중에 넘어지는 것에 대한 은유이다.

(R)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㊲

(S)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㉛

넘어진다는 것은 도보가 중단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상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상황이나 인생의 진보를 막는 사건은 여행자가 넘어져서 걸음을 지속하지 못하거나 여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6) 요약

이상을 토대로 CCM에서 나타난 [인생은 여행] 은유의 구성 요소들과 그것들의 사상 관계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인생은 여행] 은유의 구성 요소

인생		여행
삶의 주체	———	여행자
삶의 과정	———	길
조언자(절대자)	———	가이드
선택점	———	갈림길
일상	———	도보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통해, CCM에 나타나는 은유 표현들 역시 전체적으로는 무난하게 보편적인 [인생은 여행] 은유의 틀을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 기독교 공동체의 언어라는 맥락 속에서 CCM의 여행 은유는 다음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가이드'의 절대성이 나타난다. CCM 가사에서 가이드는 안내자이자 보호자, 친근한 동반자이며 가이드의 조력 없이는 여행자의 여정이 지속되기 어려운 것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이런 '가이드'가 사상되는 '조언자'는 사실상 기독교의 '절대자'를 가리키고 있다. 이는 기독교 세계관에서 인생이란 절대자에게 의탁하지 않고는 지속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됨을 함의한다. 또한 절대자는 인생의 매 순간을 함께하는 친근한 존재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길'이 이분법적으로 분류된다. CCM에서는 여러 가지 이름의 길이 나타났지만 본질상 그것은 여행자가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가서는 안 되는 길로 양분된다. 이는 인생에서의 결정 역시 옳은 것과 그른 것으로 이분법적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 신앙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선택점에서 당위적이고 신앙 양심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것을 요구받는 것이다.

셋째, '목적지' 관련 표현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등장하더라도 길을 걷

다 보면 다다르게 되는 도달점 정도로 흐릿하게 제시될 뿐이다. 반면 여행의 현재 진행 과정을 나타내는 '도보'와 같은 표현은 구체적이고 빈번하게 출현한다. 이처럼 현재의 여정에 대한 표현이 주로 등장한다는 것은, 최근 '인생'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먼 미래나 내세보다는 당면한 삶의 현장이 더 초점을 받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점은 목표 영역인 '인생'의 구성 요소 중 근원 영역인 '여행'의 구성 요소인 '목적지'에 대응시킬 만한 것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데에서 기인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만약 '인생의 목표'를 '목적지'에 대응시킨다면, 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한 이후의 여생, 즉 이미 목적지에 도달한 여행자의 그 이후 여정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 경우 인생을 목표 달성을 위해 살아가는 과업지향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문제이다. 한편, '죽음', 즉 인생의 물리적인 종결을 '목적지'에 대응시키는 것도 보편적인 감정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여행에서의 목적지는 기대감을 가지고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인데, 인간이 죽음을 적극적으로 추구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자연스레 '여행'이라는 근원 영역의 사건 구조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으로 이어진다. 만일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추구하고, 목적지에 도달함으로써 종결되는 것이 여행의 사건 구조라면 그것은 아래 (Tㄱ)과 같이 단순화된다.

(T) ㄱ. 출발지 → 이 동 → 목적지
ㄴ. 출발지 → 이 동 → 목적지 → 회 귀 → 출발지
ㄷ. 출발지 → 이 동 → 이 동 → (반복)

그러나 이 외에도 (Tㄴ)과 같이 목적지에서 여행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출발점으로 회귀하는 것 또한 여행의 사건 구조로 제시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Tㄷ)과 같이 귀환을 전제하지 않으며, 여행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이동을 이어가는 것도 여행의 한 장르로서 보고되고 있다.[22]

22) 이민영, 「'헬(hell)조선' 탈출로서의 장기여행—인도의 한국인 장기여행자들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22집 2호,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2016, 291-328면.

이를 고려하면 여행 은유의 원형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여행 은유의 원형이 바뀌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CCM을 소비하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당면한 삶의 현장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는 해석은 여행의 원형을 (T¬)으로 전제할 때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여행을 목적지가 명확한 경주로 생각하지 않으며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여행의 본질이 될 수 없다고 본다면, CCM 가사에서 나타나는 목적지의 부재 현상은 '여행'이라는 근원 영역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다. 따라서 추후 종교 언어를 넘어 보편적 언어 자료를 대상으로 '여행' 자체의 사건 구조에 대해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

5. 결론

본고에서는 CCM에 나타난 [인생은 여행] 은유를 하위분류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삶의 주체는 여행자', '삶의 과정은 길', '조언자(절대자)는 가이드', '선택점은 갈림길', '일상은 도보'와 같은 하위 은유를 정리하였고 이를 통해 기독교 공동체의 언어 역시 [인생은 여행]이라는 보편적인 은유를 공유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 은유는 다음과 같은 특수성도 담고 있다. 첫째, '가이드'가 절대적인 존재로 나타난다. CCM 가사에서 가이드는 여행을 안내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 물리적 조력을 아끼지 않으며 보호자와 동반자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이러한 가이드에 사상되는 존재가 절대자라는 점에서, 최근 CCM을 향유하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신은 관념적인 존재를 넘어 인생 전반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존재로 인식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생은 절대자에게 의탁하지 않고는 지속되기 어려운 것으로 이해됨을 추론할 수 있다.

둘째, 가사에 나타난 여러 종류의 '길'들은 사실상 가야 하는 길과 가서는 안 되는 길로 양분된다. 이는 신앙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인생에서의 결정은 가치 판단의 대상이며, 인생의 선택점은 신앙 양심에 부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중에서 결정하기를 요구받는 순간으로 이해된다

는 것을 함의한다.

셋째, 여행의 하위 요소 중에서 '목적지'와 관련된 표현은 거의 나타나지 않은 반면, 여행의 현재 진행 과정을 나타내는 '도보'와 같은 표현은 구체적이고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먼 미래보다는 현재의 여행의 과정이 조명받는다는 것은, 인생 인식에 있어서도 당면한 삶의 현장이 더 초점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인생은 여행] 은유 자체에서 '목적지'에 대응시킬 만한 요소를 찾기 어렵다는 한계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인생을 목표지향적으로만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인생의 종결인 죽음을 여행의 목적지로 대응시키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추후 보다 보편적인 언어 자료를 대상으로 여행 은유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여행의 사건 구조에 대해서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개념적 은유는 우리가 신체적으로 또한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공통적 경험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여행 체험을 공유하는지, 현대인들의 인식 속에서 여행의 원형이 바뀌지는 않았는지 살펴본다면 여행 은유를 새롭게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본고를 통해 최근 CCM을 소비하는 기독교 신앙인들 역시 보편적인 여행 은유를 공유하기는 하지만, 일부 구성 요소에 추가적인 특성을 부여한다거나 특정 요소를 더 사용하거나 덜 사용함으로써 신앙관에 부합한 나름의 인지 체계를 꾸리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회 구성원 전체가 사용하는 언어 자료를 기반으로 한 은유 연구는 이미 다방면으로 진행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특정한 정치관, 종교관, 가치관 등을 공유하는 언어 공동체라는 맥락 속에서 은유가 실현되는 양상 또한 살핀다면 동시대를 살아가는 타자를 이해하는 지평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기독교의 언어만을 다루었지만 앞으로 사회를 이루는 다양한 공동체의 언어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언어와 인지, 타자에 대한 이해를 넓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권익수, 「햇볕 정책, 그리고 개념적 은유」, 『담화와 인지』 제22권 3호, 담화・인지언어학회, 2015, 19-37면.
나익주, 「"정"과 "한"의 은유적 개념화」, 『한국어 의미학』 제20집, 한국어의미학회, 2006, 91-120면.
_____, 『조지 레이코프』, 커뮤니케이션북스(주), 2017.
박정운, 「개념적 은유 이론」, 『언어와 언어학』 제28집, 한국외대 언어연구소, 2001, 85-107면.
방영심・이정화, 「한국어에 나타나는 "한(恨)"의 개념화 양상」, 『한국어 의미학』 제22집, 한국어의미학회, 2007, 95-121면.
배연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한국 교회에서의 언어 사용 유형 및 가치관」,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3.
유희재, 「남성과 여성을 나타내는 동물 은유의 비판적 분석」, 『담화와 인지』 제24권 4호, 담화・인지언어학회, 2017, 87-113면.
이민영, 「'헬(hell)조선' 탈출로서의 장기여행—인도의 한국인 장기여행자들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22집 2호,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2016, 291-328면.
전혜영, 「한국어 표현에 나타나는 여행 은유」, 『이화어문논집』 제33집, 이화어문학회, 2014, 75-103면.
_____, 「은유 표현을 통해 본 한국인의 질병관」, 『한국문화연구』 제30호,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16, 133-161면.
조지 레이코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유나영 역, 와이즈베리, 2015.
조지 레이코프・마크 존슨, 『삶으로서의 은유(수정판)』, 노양진・나익주 역, 박이정, 2006.

멜론, https://www.melon.com(2019.05.22. 검색, 2020.03.23. 재검색).

【Abstract】

A Study on LIFE IS A JOURNEY Metaphor Expressed in CCM

Lee, Ju-R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bclassify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LIFE IS A JOURNEY' in 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in order to examine the features created by the conceptual metaphor in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community. This study used the lyrics of 91 popular CCMs in Melon chart (the most frequently used music platform in South Korea) between 2017 and 2018.

The results showed mapping of 'LIFE IS A JOURNEY' as follows: 'Individuals are travelers', 'Phases in life are routes', 'The counselor is a guide', 'The moment of choice is a crossroad', and 'Living is walking.' However the actual realization of this metaphor in CCM has three features. First, the 'guide' plays an essential role in the traveler's life not only as a guide but also as a guardian and companion forming intimate relationships with travelers. Regarding the fact that counselors indicates God in the lyrics, it is inferred that God's existence has been an indispensable part of Christians' view of life. Secondly, various 'routes' that travelers encounter turn out to be classified into two types: the route they should follow and the other that they should not follow. This implies that, to Christians, the moment of decision making in their lives is not value-neutral. It is rather understood as the moment when they have to choose between right and wrong according to their religious conscience. Thirdly, while the 'destination' of journey was barely expressed in the lyrics, expressions related to 'walking' frequently appeared. It may be interpreted that people focus more on the present daily life than the future afterlife. However, relatively sparse occurrence of the expressions corresponding to 'destination' may be due to the fact that it is difficult to pick one adequate element of life which corresponds to 'destination' of journey. Therefore, the prototype of journey remains the subject of further study.

Based on the above framework, this study found that Christians use conceptual journey metaphors as well, but by adding additional features to some elements and us-

* Ph.D. Candidate,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wha Womans Univ.

ing some elements more or less, they are building their own cognitive system that conforms to their view of the world. This paper has a limitation that it analyzed the religious language only in the form of CCMs. However, it has an implication in doing metaphor research regarding social community sharing specific value and worldview. This research hopes to shed light on the expansion of cognitive linguistics research regarding social context so that it would deepen not only the understandings of metaphors but also understandings of others living at the same time, in the same society.

Keywords: Conceptual Metaphor, Journey Metaphor, LIFE IS A JOURNEY, 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Religious Language, Christianity.

접수일: 2019.12.31. ‖ 심사일: 2020.04.10. ‖ 게재확정일: 2020.05.06.